



# 생활속 연구 : 생동감 있는 현장 연구 강화

김찬규 \_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지난 4월 12일 ‘2015년 하반기 연구지원사업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장밀착형 연구를 추구하기 위해 충남 도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구지원사업은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및 시민활동가를 대상으로 연구모임 및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모임 3건과 연구과제 4건에 대한 성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 ■연구모임

과제명	과제책임	소속
‘충남지역 소외지역 및 계층 (산간도시벽지의 노인층, 장애인, 재소자, 청소년 등) 을 찾아가는 인문학 가의’ 활성화연구팀	남수중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사람사는 골목 연구회	백은미	공주골목길 재생협의회
갈등과 분쟁을 넘어 협력과 상생으로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 ■연구과제

과제명	과제책임	소속
충남 지역의 안전환경 분석을 통한 재난관리 방안	김은경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공주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DB화 (문헌자료 및 구전자료)	정선원	(사)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충남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조도영	충남학 강사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 삶의 질 분석 및 지역격차 해소방안	현대용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 연구모임

### 1. ‘충남 소외지역 주민대상 찾아가는 인문학 강의 개설 연구모임’

- 이 연구 모임은 공주대 경제통상학부 남수중 교수와 “거리의 인문학자”로 알려진 최준영 작가가 공동 책임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 인문학은 우리 삶에 있어 의미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일부 지역 및 계층은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이 이 모임의 출발 배경이다.
- 따라서 이 모임은 ‘충남지역 소외지역 및 계층(산간도시벽지의 노인층, 장애인, 재소자, 청소년 등)을 찾아가는 인문학 강의’의 개설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전문가 초청 4회의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모임의 논의 결과 철학, 역사, 문학을 중심으로 약 4회에 걸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시민인문학의 의의 및 방향에 대한 안내와 시민인문학의 경험 공유”, “나는 누구인가, 공동체는 무엇인가,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역사에 대한 이해로부터 현실에 대한 자가진단”, “문학 속의 현실, 현실 속의 문학” 등을 주제로 한 강좌의 개설을 제안하고 있다.
- 강의 장소로는 각 시군의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각급 관공서 강당, 마을주민센터 등의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돌봄 서비스, 이동도서관 서비스, 심리 상담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2. ‘사람사는 골목연구회’

- 이 모임은 공주골목길재생협의회 백은미 회원이 주관하고 있다. 공주골목길재생협의회는 금선경 이사장을 중심으로 공주도심 골목을 삶의 공간, 문화의 공간, 놀이의 공간,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40여명의 주민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다.
- ‘사람사는 골목연구회’는 공주도심 골목길이 배태하고 있는 역사와 진정성을 분석하여 도시의 미래를 위한 주민 주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공주도심 골목길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전문가 및 주민인터뷰(음성, 영상)를 통해 정리, ②공주도심 골목길 관련 자료(단행본, 사진, 행정자료)등의 수집, ③채록 및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 워크숍 진행, ④워크숍 등에서 제안된 내용을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주민의견으로 제안(자료집 및 지도) 등이다.
- 이를 위해 전문가로서 공주대 지수걸 교수와 고도원 공감만세 대표를 인터뷰하고, 도심골목길에 오래 거주한 주민 10여명에 대해 3회에 걸쳐 골목길의 시대적 변천사와 일상생활의 모습 등을 인



터뷰하고 동영상 제작하였다. 또한 이를 정리하여 연구모임 회원 및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자료집을 제작하고 음성 및 영상자료를 제작하였다.

- 이러한 결과물을 활용하여 골목길의 시대적 변천사와 삶의 모습 자료화를 도시재생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과 향후 골목길 연구의 기초자료 및 지역주민의 학습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3. '갈등과 분쟁을 넘어 협력과 상생으로'

- 이 모임은 신성대학교 신기원 교수, 나사렛대학교 박상규 교수, 한국갈등관리학회 전오진 이사 등 전문가 중심의 학문적 연구모임이다.
- 이 모임을 만든 배경은 현재 진행 중인 충청남도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항만구역에 관한 관할권 분쟁은 해당 지자체의 이권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과도 무관하지 않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모임의 목적은 공공분쟁의 경우,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관련 법 제정에 유용한 지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자체연구모임 토의와 학회학술대회발표를 통해 연구 내용의 객관적 검증 및 타당성을 제고하고 행정실무자와의 토의를 통해 연구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행정적 결정과 판단 근거와 기준이 없다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유수면매립지 타당성 지표개발 및 활용, 중앙정부의 충분하고 충실성 있는 조정 및 중재역할, 형평성에 대한 주요 준거기준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 ■ 연구과제

### 1. ‘충남 지역의 안전환경 분석을 통한 재난관리 방안’

- 본 연구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의 2015년 안전혁신 추진계획 및 매뉴얼이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되었으나 지자체의 안전 환경에 적합한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정책수립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제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충청남도 지역의 안전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본 연구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자연재해는 주로 7월~9월 사이의 여름 강우 및 태풍에 의한 피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화재는 주요 도심 지역인 천안시와 아산시에 집중적으로 발생 건수가 많이 나타났고, 교통 부문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증감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타살)에 의한 사망자수는 기본적으로 사망자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자살의 경우는 사망자수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취약계층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고령화 사회에 의한 문제와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좀처럼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 본 연구는 개선해야 할 과제로 3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지역특성 맞춤형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즉 도시와 농촌 지역을 모두 포함한 광역 지자체로서 각 지역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충남의 기초지자체에서 구성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 재난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재난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2. 공주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DB화

- 본 과제는 공주지역의 근현대 역사유적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전적인 우금티사적지(국가사적지 제387호)에 대한 학술적 자료와 구전조사 자료를 DB화하여 향후 학술연구에 활용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 따라서 ①1986년~2015년 사이에 발간된 동학농민혁명 학술자료(단행본 및 논문) 124건에 대한 목록을 정리하고, ②1980년~2015년 사이의 공주·충남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문학 자료 목록 24건을 정리하고, ③공주지역 동학구전 인터뷰 동영상 자료를 기존 아날로그 비디오테이프 형태의 자료를 디지털 동영상 자료화하였다.
- DB화를 통해 자료를 보존함은 물론이고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일반



인들에게도 좋은 자료를 제공하여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비구름을 삼킨 하늘> (이장상미 지음, 2015년 모시는 사람들 출간, 공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여성다큐소설) 창작에 “공주와 동학농민혁명”(2015년 발간)의 구전자료가 활용되기도 하였다.

### 3.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충남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본 연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 유적지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관련 세계문화유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약 700여 년간 존속한 한반도의 한 국가이다. 백제 역사유적 지구는 백제의 도읍들과 연관된 백제 후기(475~660)의 유산으로 웅진 왕도관련 유적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사비도성 관련 유적인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나성, 사비 시대의 복도(復都) 관련 유적인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등 8개의 유적으로 구성된 연속 유산이다.
- 이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주변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발전이 절정에 이른 백제 후기를 대표하는 유산이다. 백제가 중국으로부터 도시계획, 건축기술, 예술, 종교(불교)를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킨 뒤, 이를 다시 일본과 동아시아에 전해주었음을 증명하는 유산인 것이다.
-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국내 세계 문화유산 등재 문화재들과의 통합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 등을 통한 문화재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지원과 함께 테마별 관광주관행사 등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관심 유도와 관광 인프라 확보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객관적 정보제공과 보존 및 보호를 위한 우리 스스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정 순간〉



〈공주 공산성〉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백제역사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학술활동 및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컨벤션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지속가능한 문화자원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관련 문화재와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익의 배분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4.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 삶의 질 분석 및 지역격차 해소방안

-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의 삶의 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둔 지역발전정책이다.
-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천안시 및 아산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의 필요성,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업간 연계성,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 추진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필요성과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전략 마련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소통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주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주민생활 밀착형 세부사업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 생활권에 포함된 지자체들의 주민에게 단순히 '우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넘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